오늘의 게시판

이충무공 탄신 제 461주년 제전식 오전 10시 목포시 충무동 고하도

행사

〈28일〉

▲광주전남경총 금요조찬 연수회=오전 7시 무등파크호텔. 조영탁 (주) 휴넷 대표이사가 '행복한 경영!'이라는 주제로 기업경영 성공방정식 강연.

▲한국복지정보통신협의회 광주·전남지부 창립 10주년 기념행사=오전 11시 KT 광주정보통신센터 3층 대회의실.

▲이민원 교수 출판기념회=오후 6시30분 무등파크호텔 4층 컨벤션홀. 이교수의 '지방이 블루오션이다'라는 책 출판 기념회.

▲이충무공 탄신 제 461주년 제전식=오전 10시 목포시 충무동 고하도. 이충무공 목포지구 기념사업회 관계자 등 700명 참석 예정. 오전 8시30분 목포시 유달산. 이충무공 동상 참배.

▲중소기업협동조합 목포출장소 개소식=오전 11시 목포시 옥암동 KT&G 빌딩.

▲제 45회 전남도민체전 폐회식=오후 3시30분 보성군 공설운동장.

〈29일〉

▲제 8회 담양대나무축제 개막식=오후 8시 담양군 추성무대 앞.

▲제6회 스승의날 기념 어린이집 교사·원장 체육대회=오전 10시 염주실내종합체육관.

공연

▲시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28일(금)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베토벤 교향곡 제 5번 '운명', C단조 작품 67 등 연주.

▲DUO Piano 정기연주회=28일(금)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이근영·오자형·서재옥·조지영·문마리아·류은선·최미선·오경민 등 출연.

▲25주년 기념 광주클래식 기타 정기연주회=29일(토)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정혜두 외 19명 출연, 클래식기타 합주 및 중주.

▲이문세 독창회 'IV-Episode'=29일(토) 오후 7시, 30일(일) 오후 5시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전남도립국악단 상설공연=29일(토) 오후 5시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소공연장.

▲제 307회 토요민속여행 상설공연=29일(토) 오후 2시 진도향토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물래타령·남도민요·단막창극·판소리·진도북춤·진도아리랑 등 공연.

▲크리스찬 유스앙상블=30일(일) 오후 6시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소공연장.

▲극단 토박이 '장미여관 208호'=30일까지 평일 오후7시, 주말 오후4시·7시 광주시 궁동 민들레 소극장. 오늘을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이 역사적 사건의 가해자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그린 작품. 나창진·박정운·강진희씨 등 출연. 222-6280~1

전시

▲야생화 전시회=28일부터 4일간. 한국가사문학관 갤러리.

▲국제현대미술 확산전=6월 2일까지 보성군립 백민미술관. 중국 11명·일본 11명·한국 30명 등 52명의 작가들의 예술 전 분야에 걸친 작품 전시.061-853-0003

▲광주시립미술관 '즐거운 미술여행'전=5월28일까지 시립미술관. 인터랙티브 가상현실 아트·동화나라·미술나라 등 어린이 체험형 행사.

▲조선대학교미술관 소장전=5월5일까지 조선대 미술관.'만남 그리고 어울림'을 주제로 7·80년대 화가들의 작품과 조각, 서예 등 66점 전시.

역사속의 오늘

▲충무공 이순신 태어남(1545)

▲이라크 독재자 사담 후세인 태어남(1937)

▲프랑스군, 베트남 철수 완료(1956)

▲이기붕 일가족, 경무대서 자살(1960)

▲대구지하철 공사장에서 도시가스 폭발로 98명 사망(1995)

뉴스퀴즈

9. 최근 일본 정부가 동해상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수로 측량 활동을 하겠다고 국제수로기구(IHO)에 통보하면서 한·일간 해상 충돌 가능성까지 대두되는 등 파문이 일었습니다.

특히 일본측이 제시한 수역에는 울릉도 인근 섬 이곳 해역까지 포함되면서 국민들의 주권 수호 의지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이 섬은 어디일까요?

① 독 도　② 제주도
③ 백령도　④ 강화도

참여 방법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삼성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 드립니다.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검색절정 키워드 | 검색

패러디 동영상물 '독도의 제왕' 관심 높아

연예계 입문 17년만에 스크린에 데뷔하는 톱스타 고현정이 인기 검색어 1위에 올랐다.

고현정은 최근 영화 '해변의 여인'(감독 홍상수·제작 영화사 봄·전원사)을 스크린 데뷔작으로 선출하고 제작 발표회를 가졌다.

또 영화 속 주된 배경이 될 해수욕장을 갖고 있는 전국 지자체들로부터 촬영장 유치 러브콜도 쏟아지고 있다는 후문이다.

공천 장사 소식도 인터넷을 달궜다. 한나라당이 김덕룡·박성범 의원을 공천 헌금 수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가 진행중이고 민주당 당 3역 중 1명인 조재환(57) 사무총장이 전 민주당 의원에게서 전북 김제시장 공천 청탁과 함께 4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다.

또 민주당 전남지역 모 군수 후보의 공천 헌금 의혹과 관련, 검찰이 군수 후보 및 관련자 사무실에 대한 압수색을 실시하는 등 공천 헌금 의혹이 지방 선거의 핵으로 부상했다.

영화배우 **강혜정의 '성형설'**도 네티즌들의 클릭 세례를 받았다. 영화 '도마뱀'촬영을 마친 강혜정이 몰라 보게 예뻐졌기 때문인데, 영화 '웰컴 투 동막골''연애의 목적' 등과 다른 얼굴이라는 것이 한눈에 확인된다.

네티즌들이 이를 눈치채지 못할 리 없다. 강혜정 소속사는 "최근 치아 교정을 받았고 이를 뽑았을 뿐이다"고 해명으로 일단락됐다.

신동엽·선혜윤 커플의 웨딩 사진이 공개되면서 네티즌들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웨딩 사진은 단아한 한복과 턱시도 등을 입은 이들 커플의 행복한 모습을 볼 수 있으며, 특히 선혜윤 PD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폭발적 인기를 끌고 있다.

또 김여사 놀이라는 신종 놀이도 네티즌 사이에 오르내린 검색어다. 김여사는 교통법규를 무시하거나 소통에 방해를 주는 무개념 여성 운전자를 통칭하며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보는 이들을 아찔하게 하는 도로 역주행 사진이나 교통을 온통 엉키게 만드는 사진 등을 퍼나르면서 일명 김여사 놀이를 하고 있다.

최근 촉발된 일본의 '동해 도발'과 관련, 영화 '반지의 제왕'을 패러디한 동영상물 '독도의 제왕'도 검색 빈도가 많았다.

이외 **추적 60분의 동영상** 및 영화배우이자 가수인 **이재은**(26)이 안무가인 이경수(35)씨와 결혼식을 올린 소식 등도 화제의 검색어 대열에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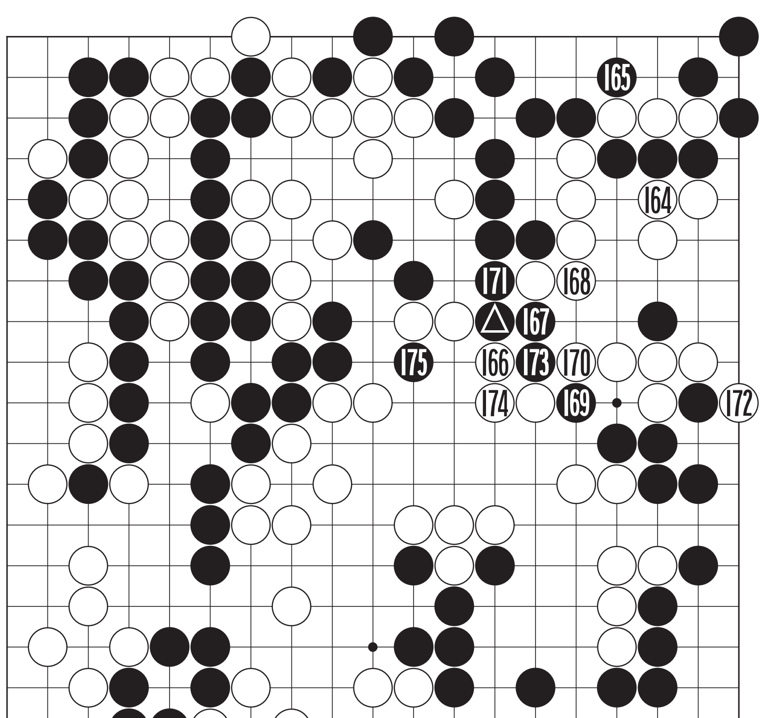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주간 급상승 검색어 〈네이트 닷컴 제공〉

순위	검색어	순위	검색어
1위	고현정	6위	이명박
2위	공천장사	7위	영어듣기평가
3위	강혜정성형	8위	추적60분동영상
4위	천안인쇄살인용의자	9위	신상옥
5위	박지성	10위	이재은결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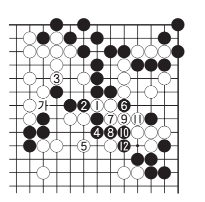
오는 5월 27일 결혼 예정인 신동엽·선혜윤 커플의 웨딩사진.

2005 바둑마스터스 삼국지



끝내기의 '묘착' 결승전 제 11보(164~175)

白 이 창 호 (9단) 〈엠게임〉 　黑 조 한 승 (8단) 〈타이젬〉



〈참고도〉

전보 마지막 수 흑 △가 살얼음판의 형세를 흑쪽으로 기울게 한 끝내기의 묘착이었다. 백이 참고도의 1로 끊어 오면 흑 2가 윗쪽 백 대마의 사활과 관련, 절대 선수가 된다. 백이 3을 생략하면 흑 '가'로 대마가 잡힌다. 그런 다음 4를 선수하고 6부터 12까지 중앙이 초토화 되고 만다.

불의의 일격을 당한 이창호 9단이 응수를 하지 못하다가 마지막 아홉 소리에 164를 선수하여 시간을 번 뒤 눈물을 머금고 166으로 물러섰다. 171까지는 그냥 끝내기 한 것과 비교해 네 집이나 이득이다.

끝내기가 어렵다는 것이 바로 이런 점이다. 조그만 실수가 승부에 직결되기 때문에 시종 긴장을 늦춰서는 안된다. 단순한 계산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끊임없이 수단의 여지를 찾아내고 그것마저 계산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생활의중심 SK telecom　KT&G 전남본부

바둑소식

프로기사, 야구팀 '기(棋)' 재창단

젊은 프로기사들이 지난해 결성한 프로기사 야구팀이 팀명을 흑백스톤즈에서 최근 바둑을 뜻하는 한자인 '기(棋)'로 바꾸고 재창단했다.

선수들은 최철한, 김승준, 김영삼, 양건, 박병규, 윤현석, 이정우 등 전원 현역으로 활동중인 프로기사들이다.

마운드는 한종진 6단과 김승준 9단, 이현욱 6단이 지키고 있으며 17세의 김지석 3단은 차세대 '어깨'다. 박찬호 선수를 쏙 빼닮아 '반상의 박찬호'라 불리는 윤현석 8단은 야수로 활동하고 있다.

감독은 경희대 야구감독을 지낸 강진규(54)씨. 강 감독은 아마추어 유단자급의 바둑 애호가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4월 28일(음 4월 1일 丁亥)

子 36년생 자신 있게 활동하라. 48년생 재미있게 놀다 그물에 걸릴 수도. 60년생 경쟁자가 없다고 잘난 체는 말아야. 72년생 적극적인 참여로 기회를 잃지 말아야. 84년생 한 쌍의 물고기가 헤엄치는 모습으로 하루가 평안하다. 행운의 숫자 : 01, 02

丑 37년생 풍파를 만난 일엽편주니 마음의 안정을 기하라. 49년생 처가나 시가 편에 애경사가 생길 수 있다. 61년생 순풍에 항해하는 형상이다. 73년생 주변의 협조가 있다. 85년생 생소한 길을 만난 듯하니 살펴서 행동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11, 13

寅 38년생 재도전의 꿈이 실현될 징조가 보인다. 50년생 새로운 인연은 결국 허황된 상처만 남기고. 62년생 세 번 생각하고 행동하면 후회는 없으리라. 74년생 새로운 삶의 안정된 가정을 이룬다. 행운의 숫자 : 03, 12

卯 39년생 정신이 없는 하루니 각별한 신경을 쓰라. 51년생 의외의 득재와 영전 승진하는 격이나 이성문제에 신중해야 하리로다. 63년생 재물의 손실, 사기, 실물을 조심하라. 75년생 엎드려 눈물을 흘리고 주변이 산만하다. 행운의 숫자 : 14, 11

辰 40년생 모든 일이 순조로우나 배우자의 건강을 챙겨보라. 52년생 자신의 입으로 그동안 쌓아놓은 정성이 무너질라. 64년생 재물이 사방에 있고 도처에 은인이라. 76년생 바빴던 손을 놓고 뒤를 돌아보는 것도 좋으리라. 행운의 숫자 : 05, 10

巳 41년생 특별히 건강에 유념해야 한다. 53년생 말씨마다 걸음마다 심신까지도 신중하고 조심해야 한다. 65년생 시비수가 따르고 신체적 불편이 발생할 수도 있다. 77년생 주변으로 인해서 괴로움과 안타까움이 생길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16, 09

午 42년생 모든 일에 불편한 인연이 따를 수가 있다. 54년생 의외의 협조가 있고 식구가 늘어날 수도 있다. 66년생 애정의 권태가 있으니 진실한 마음으로 대해야 할 것이다. 78년생 보이지 않는 모색을 하고 있으나 쉽지는 않다. 행운의 숫자 : 07, 08

未 43년생 부부의 냉전으로 어수선한 분위기라. 55년생 의심스런 굴속을 지나는 형상이니 살펴봐야 하리라. 67년생 불연이면 물 위의 기름으로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으니 주변을 살피라. 79년생 우연한 이성의 만남도 꿈꾸어 보라. 행운의 숫자 : 17, 18

申 44년생 재물과 처 사이에 갈등이 생기니 중정의 마음을 가져라. 56년생 서류의 잘못과 윗사람의 불편이 있으리라. 68년생 직업과 남편 사이에 불만과 불평이 나타날 수도 있다. 80년생 상당한 고역이 따를 수가 있다. 행운의 숫자 : 09, 16

酉 45년생 새로운 일 생길 듯하다. 57년생 안 밖으로 삭막하고 기력이 상실되니 건강에 유의하라. 69년생 순류에 항해하는 격이다. 81년생 식구들과 떨어져 지낼 수도 있고 애사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주변을 살펴봐야 한다. 행운의 숫자 : 20, 25

戌 46년생 금전사기 큰 소비가 있을 수 있고 건강의 점검도 점검하라. 58년생 부부간 언쟁 벙고 큰 소비가 있으니 현명하게 생활하라. 70년생 형제 및 주변의 도움이 있고 학문의 발전이 있다. 82년생 큰 성공의 기틀이 마련된다. 행운의 숫자 : 14, 21

亥 47년생 절대 새로운 일이나 금전거래는 신중하고 건강관리에 유념해야 하리로다. 59년생 자신의 입으로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 71년생 무리만 않으면 어부지리도 한다. 83년생 좋은 일도 있고 흉한 일도 있다. 행운의 숫자 : 22, 23

www.cafe.daum.net/sajoo114 ☎011-632-6121

굿모닝 잉글리쉬 <635>

Can't you ask me in a nicer way?

좀 더 부드럽게 요청해 주시면 안되나요?

A:Give me that brochure.
B:**Can't you ask me in a nicer way?**
A:Sorry. I can't help it. I'm under such pressure at the moment.
B:It's OK then.

A:그 안내책자, 주시오.
B:**좀 더 부드럽게 요청해 주시면 안되나요?**
A:미안해요, 나도 어쩔 수 없네요. 지금 나는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있거든요.
B: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뭐.

"Give me that brochure."앞에
"Could you~?"를 붙여 말하 면 훨씬 더 낳다.
in a nicer way = in a more polite way
be under~ = ~을 받고 있다
such pressure at the moment = a lot of stress right now

〈동아 외국어학원 제공〉
www.donga.tv ☎ 222-6253

오하이오 니혼고 <635>

バ-チャルショップすることでしょう?

가상 쇼핑하는 것 말이죠?

A:今は、コンピュ-タがあれば、お金を持ち□(ある)かなくてもショッピングができるのね。
B:ああ、パソコン使って、**バ-チャルショップすることでしょう?**
A:そう。なんでも電子(でんし)マネ-だったかなんだったかで。
B:家計簿(かけいぼ)ソフトを使(つか)えば、銀行管理(ぎんこうかんり)も簡□(かんたん)よ。

A:지금은 컴퓨터가 있으면 돈을 가지고 다니지 않더라도 쇼핑을 할 수 있어.
B:아-, 퍼스널컴퓨터를 사용해서 **가상 쇼핑하는 것 말이죠?**
A:그래. 잘은 모르지만 전자화폐였던가 뭐였던가로….
B:가계부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은행관리도 간단해.

マネ- : 돈, money
持(も)ち댕(ある)く : 가지고 다니다, 들고 다니다
バ-チャルショップ : 가상쇼핑
なんでも : 무엇이든지, 모두, 확실히는 모르나
家計簿(かけいぼ) : 가계부

〈광주 일본어 문화원 제공〉
http://kglobal.wo.to ☎ 228-2545

니하오 쭝구워 <383>

豆腐渣工程

부실공사

A:这是一个"豆腐渣工程"。
zhè shì yí ge 'dòufu zhā gōngchéng'
[illegible]

B:[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A:이건 부실공사야.
B:그렇게 많은 돈이 모두 어디로 간 거야?

豆腐 (dòufu) 두부
渣 (zhā) 찌꺼기, 부스러기
工程 (gōngchéng) 공사

豆腐渣는 두부의 부스러기를 가리키는 말이며 여기서는 부실공사를 비유적으로 나타낸다.

〈리틀차이나 중국어전문학원〉
www.littlechina.co.kr ☎ 233-9582

한자 이야기 <253>

半導體 (반도체)

반 반, 이끌 도, 몸체

반도체(半導體)는 글자대로 하면 절반만 전도하는 물체이다. 전기를 잘 전달하는 도체(導體)와 전기를 거의 전달하지 않는 절연체(絕緣體)의 중간에 위치하는 물질이다.

반(半)은 우(牛)+팔(八 : 나누다)로, 둘로 나눈 소, 물건을 둘로 나눔을 나타낸다. 도(導)는 촌(寸=手)+도(道)로, '이끌다'를 의미한다. 체(體)는 례(豊 : 이어지다)+골(骨)로, 쭉 이어지는 뼈로 몸을 나타낸다.

반도체는 온도에 따라 전도율(傳導率)이 달라진다. 상온에서는 전도율이 도체와 절연체의 중간 정도이지만, 낮은 온도에서는 거의 전기가 통하지 않고, 높은 온도에서는 전기가 잘 통한다. 이 반도체 소재로는 실리콘, 게르마늄, 산화 제일구리 따위가 있다.

우리생활에서도 많은 곳에 반도체가 응용 사용되고 있다. 전자제품에 사용하던 진공관 대신에 트랜지스터가 사용되어 전자회로 등의 소형화·경량화에 기여하였다. 반도체의 발달로 모든 산업이 최첨단으로 성장할 수 있었고, 특히 우리나라의 수출의 효자상품으로 경제성장에 지대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한예원(韓睿嫄)〉
조선대학교 고전연구원 ☎ 230-6105